

제17代 대통령 이명박 압도적 當選

포천 전체 투표율 59%, 지지율 57% 정동영 후보에 크게 앞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리로 제1차로 당선됐다.

포천지역 개표결과 이명박 후보는 전체 유효투표 7만1천153표 가운데 57.1%인 4만396표를 얻어 1만4천971표(21.2%)를 얻는데 그친 정동영 후보를 크게 앞섰다.

3위는 8천234표(11.6%)를 얻은 이회창 후보, 문국현 후보 3천720표, 권영길 후보 2천98표, 이인제 후보 704표, 허경영 후보 407표, 금민 후보 57표, 전관 후보 46표 등을 각각 획득했다.

포천지역의 경우 전체 61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율 58.95%로 67.59%를 보인 지난 제16대 대통령선거에 비해 크게 낮았다.

포천지역 전체 유권자 12만621명 가운데 7만1천153명이 투표에 참여해 58.95%가 참여했다. 읍면동별 투표현황을 보면 소흘읍은 전체 유권자 3만3천535명중 1만8

천284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54.52%를 보였다.

또 군내면은 유권자 5천711명중 3천520명이 참여해 61.64%, 내촌면 4천458명중 2천645명 59.33%, 가산면 7천190명의 유권자중 4천42명 56.22%, 신북면 1만808명중 5천671명 53.46%, 장수면 2천520명중 1천617명 64.17%, 영중면 4천867명중 3천9명 61.82%, 일동면 8천588명중 5천4명 58.27%, 이동면 5천106명중 3천160명 61.89%, 영북면 8천147명중 4천851명 59.54%, 관인면 3천492명중 2천225명 63.72%, 화현면 2천446명중 1천571명 64.24%, 포천읍 1만3천561명중 7천764명 57.25%, 신단동 1만466명중 5천323명 50.80%가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포천지역에서는 투표하러 나온 65세 이모씨가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을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간 중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소흘읍 상운아파트에 거주하는 이 모씨는 오전 6시40분경 100m

떨어진 순복음아멘교회 투표소에 투표하러 왔다가 기포하던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오전 6시50분경 차량에서 숨졌다.

또 오전 11시에는 가산면 2부표구에 투표하러 나온 70세 강모 할머니가 투표용지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잘못 기입했다면서 투표용지를 재교부해 줄 것을 요청하다가 거절당하자 투표용지를 찢고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의 제지를 받고 귀가했다.

고조흥 국회의원은 오전 9시40분경 포천고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부인과 투표를 마쳤다. 고 의원은 오전에 당직자들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오후에는 각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투표를 독려했다.

이보다 앞서 황영철 시장 권한대행은 오전 9시경에 포천초등학교 투표소에서 부인과 투표를 마쳤다.



투표를 마친 황영철 시장 권한대행은 포천시청 재난상황실에 마련된 선거상황실을 방문해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이 모씨에 대해 동향보고를 받고, 이어 읍면동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지금 포천은 이렇다 48
 2008년 포천시 예산안 3천497억원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사회복지 중점

포천시는 2008년도 본 예산을 2007년 대비 274억 3천881만원이 증가한 3천497억1천542만원을 편성해 포천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포천시는 내년 예산편성 기준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사회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경우 일반행정비는 2007년 대비 36억1천722만원이 증가한 246억5천여만원을 비롯해 공공시설 및 안전분야 3억7천만원 증가한 16억9천만원, 교육분야 13억6천만원 증액된 32억7천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48억3천만원 증가한 101억7천만원, 환경분야 5억2천만원 감소한 288억9천여만원, 사회복지분야 187억3천만원 증가한 628억5천여만원, 보건분야 9천350만원 증가한 40억9천만원, 농림분야 10억1천만원 증가한 331억4천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1억352만원이 증가한 42억5천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87억4천만원 증가한 284억4천여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억1천만원 증가한 356억2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경비 15억2천만원 증가한 522억6천만원 등이다.

2008년 특별회계 예산의 경우 관광개발사업은 올해보다 584만 감소한 10억6천만원, 의료급여기금 4천만원 감소한 12억9천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2억5천만원 감소한 13억원, 농기계임대사업 2008년 신설 특별회계로 4억3천944만원, 공영개발사업 1천687만원 증가한 12억9천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5억5천만원 증가한 13억7천만원, 기반시설 13억1천만원 증가한 18억3천만원, 주차장 2억7천만원 증가한 11억4천만원, 주택사업 4천333만원 증가한 5억7천만원, 수질개선 16억4천만원, 수도사업 10억8천만원 증가한 147억 9천만원, 하수도사업 42억8천만원 감소한 337억1천만원 등이다.

이 당선자의 대북정책은 '실용주의'다. "북한의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북정책 역시 경제를 중심으로 풀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비핵화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대북관계 개선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 역시 확고하다. 이 당선자는 "지난 10년간 한·미 관계가 무너졌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 및 복지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경쟁력 제고사업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5개교의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사업 등을 통해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17개 중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여 글로벌 교육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24억원을 투입, 10개교에 11개 교육경비 보조를 통해 교육환경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학생수 400명 이하의 농촌 21개교에 무료급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포천시청 활성화와 연구용역과 온천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저렴한 안정한 연료의 보급 확대를 위해 내년 상반기 신단동과 소흘읍 주변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하반기에는 신읍동까지 가스 공급관을 연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특화산업 개성개발,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유통과 우수인력양성의 구성체가 될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경제통상촉진단 파견 및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산업패밀리·클러스터 사업 지원, 중소기업 브랜드강화,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중소기업자금 자사환경개선 등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저소득층 지원사업과 노인,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지원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내년도 전체예산의 23%를 차지하는 670억원을 복지분야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선택형 맞춤형농정지원사업, 지역특화품목 육성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포천바이오플랜트 사업으로 축산분뇨 및 유기성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2007년 당초예산보다 274억 3천881만원 늘어난 3천497억 1천542만원을 수립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이명박 당선자 국정우선 순위 '경제'



당선이 확정된 이명박 후보와 함께 기뻐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이명박 당선자는 올해 나이 66세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현대건설과 인천제철 등 현대그룹 10개 계열사 사장과 회장을 역임했다. 또 92년부터 98년까지 14대와 15대 국회의원을 거쳐 2002년 민선2기 서울특별시시장으로 당선되어 2006년까

지 재직했다.

기업인 출신의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는 적지 않은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의 정책과 해 온 말을 볼 때 '자율' '실용' '효율' '법치'가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당선자는 "무엇보다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치보다 '경제'에 국정의 우선순위를 둘 뜻을 밝혔다. 이명박 경제정책의 기본은 '따뜻

한 시장경제주의'라고 하지만 방침은 시장경제 쪽에 있다.

이 당선자는 "기업과 국민이 마음껏 경제활동을 하고 뛰어다닐 수 있게 하면 된다. 정부는 그 경쟁에서 나오는 국민과 기업을 다시 뭉칠 수 있게 만드는 일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당선자는 "친(親)시장, 친기업 정책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면 가능하다"며 7%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일자리를 매년 60만개씩 만들어 내 300만개의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 당선자의 정책팀은 당초 대규모 정부 부채 축소를 검토해 왔다. 하지만 최근 "부채 숫자를 많이 줄이기는 어려우며

효율적 조직으로 만드는 데 집중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없었다면 우리 교육이 더 잘 될 수도 있었다"는 말을 자주해온 점으로 미루어 교육부가 집중적인 수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언론정책은 현 정부와 가장 많이 달라질 부분이다. 이 당선자는 "현 정부가 만든 신문법은 위헌적이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해왔다. 또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기자실 폐쇄 조치도 원상복귀하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 국영·공영 방송이 주된 현재의 지상파 방송업계에 손을 댈 것으로 보인다. 방송과 통신의 경계를 허물고 신문사의 방송 겸영도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이 당선자의 교육정책은 "다양한 사립고를 전국에 100개 만들어서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 당선자는 "교육도 '수요가 있으면 공급해

야 한다'는 원칙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해왔다. "영어교육을 위해 해외에 나가는 게 맞느냐, 국내에서 해외 못지않은 교육을 받도록 만드는 게 옳으냐"는 것이 이 당선자의 물음이다.

대학입시 역시 "대학에 맡기면 자율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유지하기 위해 입시제도도 강구하고 경쟁도 하게 될 것"이라고 이 당선자는 말해왔다. 이에 따라 1차적으로 수능의 반영 비율을 각 대학이 알아서 정하는 조치에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의 대북정책은 '실용주의'다. "북한의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북정책 역시 경제를 중심으로 풀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비핵화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대북관계 개선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 역시 확고하다. 이 당선자는 "지난 10년간 한·미 관계가 무너졌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식품을 선도하는 기업 영동식품

귀하신 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20년간 오로지 믿을 수 있는 좋은 제품만을 제조·판매하여 소비자에게 보답하겠다는 신념은 변함없습니다"

代表 文宰吉

< 생산품목 >

- 영동국수·소면
- 영동메밀·갈국수
- 곰표국수·소면
- 곰표갈국수
- 정훈우동·스파게티
- 차별화된 솔잎·췌·췌국수



■주소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359-2
 ■전화 : 031-535-5773
 ■팩스 : 031-534-1313